

믿는 자도 구원의 은총에서 타락할 수 있는가(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유효적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6 :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 :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유효적 소명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은 그 논쟁의 뿌리가 무엇이나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해 성경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통 신학은 타락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아르미니우스(1560-1609 A.D.) 주의는 그 논리의 전제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둡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작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의 문제이지만, 넓게는 자유 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답은 저절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1. 정통 주의와 아르미니우스 주의

설명에 들어 가기에 앞서, 먼저 정통 주의와 신정통 주의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갑니다. 정통 주의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 사도 바울, 어거스틴(St. Augustine, 354-430 A.D.), 칼빈 John Calvin, (1509-1564 A.D.)으로 이어지는 신학이고, 신정통 주의를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 A.D.)가 주장한 것입니다. 자세한 공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칼빈은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일단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예정에 의한 절대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과 반대 위치에 섰던 아르미니우스는 조건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하길 하나님은 예정에 의해 선택을 하시되, 누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미리 예지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조건예정, Conditional Predestination). 조건적 선택에 의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인간의 자유 의지의 영역에 부속시킵니다.

조건적 선택에 의하면 구원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의 선택하에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돕니다.

반면에 절대적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예정에 돕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선물이 됩니다.

절대적 선택에 의하면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고-(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조건적 선택에 의하면 타락 할 수 있습니다-(인간의 자유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유효적 소명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타락 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없느냐 하는 쟁점은 벌써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의 구절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0 :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 :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 :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 전개 방법입니다.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는 다시 타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논리 전개의 시작, 다시 말하면 논리 전개의 전제(presupposition)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는 다시 타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타락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좀더 detail 하게 말하면 인간 편에둔 아르미니우스적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신학을 하는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래로 부터 올라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신본 주의 신학과 땅으로 부터 올라가는 인본 주의 신학의 입장 차이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 근래에 저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한국의 진보 신학을 이끌어 가는 주재용 박사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입력 일자 2010, 9,15).

기자가 주재용 박사에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신학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주재용 박사는, “불가능하다--- 보수신학은 하늘로 부터 내려 오는 신학이라 한다면, 진보 신학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위에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신학은 있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 하고 싶은 것은 보수신학은 하늘로 부터 내려 오는 신학이고, 진보 신학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의 자유 주의 신학의 거두 볼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전에 인간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하여야 한다.” 이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에서 시작하여 인간에서 답을 내리면 안됩니다. 답은 하나님에서 내려야 합니다.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신학을 하는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래로 부터 올라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건적 선택을 보십시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지만 믿음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 아래 복속시키고 그 전제 위에서 논리를 전개하여 갑니다. 인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을 시작으로 하여, 인간 중심으로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여기서 우리의 사고 안에 들어 온 타락의 뿌리! 원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사고로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 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죄에 의한 지식의 유혹으로 분류합니다.

이브가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먹으면 죽을 가 하노라” 하는 인간의 이해에 사고의 근원을 두니, 그것이 타락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인본 주의 신학자들, 자유 주의 신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학문의 자유!

하나님을 떠난 학문의 자유는 자유의 길이 아닌 타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부터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도르트 종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아르미니우스의 후계자들은 지금도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생활을 진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으로 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통신학을 할 것이냐? 인본 주의 신학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로 부터 내려오는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 :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늘로 부터 내려 오는 신학을 하신 예수님은 유효적 소명을 받은자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타락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말한 것을 가지고 히 6:5-6 을 결론을 내립시다, 다시 본문을 읽어 보면,

히브리서 6 :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 :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정통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히브리서는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후 열광적 믿음에 빠져 있던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으로 인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약해져 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 자유 의지 대한 이해에 있어서 칼빈 주의와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차이

정통신학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먼저 반응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 주의에 있어서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권적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는 구원 얻는 믿음(Saving Faith), 즉 신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돌아 가셨다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의해 절대적 선택을 받아 구원얻는 믿음을 은사로 가졌으니 타락 할 수 없다고 정통 주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인간의 완전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타락을 말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타락에 의해 손상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사람은 누구나 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선택은 이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은 구원얻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에 의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인간의 자유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에 두니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은사로 받지 않아도 인간의 의지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는 마태복음 23:37 을 자유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자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3 :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짚 으면 양식있는 사람이면 “아하! 인간이 완전 타락이 입증되면 모든 것이 입증되는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 타락이 입증되면모든 사람은 정통 주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앞으로의 공부는 인간의 완전 타락을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길 좋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공부를 근원부터 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간에 대해 우리는 세단계에 걸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타락전, 타락후, 구원을 받은 후. 상태입니다

먼저 타락전 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타락전>

인간이 태초로 창조되었을 때 의지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인간은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느냐?

1. 하나님의 세가지 op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가장 최상의 창조이었나?

하나님께는 세가지 option 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option 은 아담에게 자유 의지는 주시되, 죄가 없는 eden 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후에 성도에게 약속된 신천신지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사탄이 영원히 무저갱에 가두어진 맨 마지막 신천신지엔 죄도, 죄의 유혹도, 죄와의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에덴을 만드실 때 이런 에덴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

두 번째 option 은 자유 의지는 가지고 있되,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악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있음이라 하여 이런 option 은 부인합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오늘 공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E-Mail 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option 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고, 선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자기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담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이 상태에서 타락하여 오늘 날의 이런 세계가 다가 왔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 번째 option 을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타락할 수 없이 지극한 복락의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디도서 1 : 2 --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세상의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것을 주심에 있어 너무 귀한 것이라 거저 줄 수밖에 없으나, 조건이 없이 줄 수 없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담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론에 의하면 아담은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아담의 자유 의지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은 창조될 때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2 Permissive Decree(허용적 작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어하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Permissive Decree(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바로,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행동을 해도 그것을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2.3 죄의 작정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결과는 반드시 죄가 되도록 하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 : 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2.4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 보십시오.

뱀의 말 :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되나

여자의 말 :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서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인간의 이해의 범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 신본 주의에서 인본 주의로, 내려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강제를 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 안에 있는 합리주의적 경향은, 후대의 유키너스 주의와 유니테리안 주의와 결합하여 철저한 합리 주의, 자유 주의로 타락하여 신본 주의 신학이 아닌 인본 주의 신학의 길을 갑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자기의 신학의 타락을 미리 예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내 신학도 타락할 것이다!

1. 불신앙에 의한 타락

창조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아담은 뱀이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유혹할 때, 자신의 거룩을 믿음으로 보존하여야 했습니다. 아담은 불행하게도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 때문에 타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 관찰이며, 먼저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유혹이 밀려와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아담은 철저히 불신앙에 의해 자유 의지가 오용되어 선택을 잘못된 것입니다(St. Augustine).

2.5 정리

1. 태초에는 자유 의지가 있었다.
2.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3. 신본 주의에서 인본 주의로 내려 온 것이 타락이다.